

**2022년 1월 11일(화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10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1. 10.(월)	담당부서	투자유치과
담당과장	이승헌 과장(044-203-4080)	담당자	전종형 사무관(044-203-4089)

##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- '22. 1. 10.(월) 배포 -

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본 동향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(INSC)과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의 자료를 바탕으로 '21년 외국인직접투자(FDI)를 분석한 자료임
- \*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및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(INSC)을 따름
-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'21년 12월 31일까지의 잠정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,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함
-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 분기 발표되며, '22년 1분기(누적)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'22년 4월 발표 예정

#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, 300억불에 육박하며 1962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 실적 달성

- 신고(295.1억불, +42.3%) · 도착(180.3억불, +57.5%) -

## I. 총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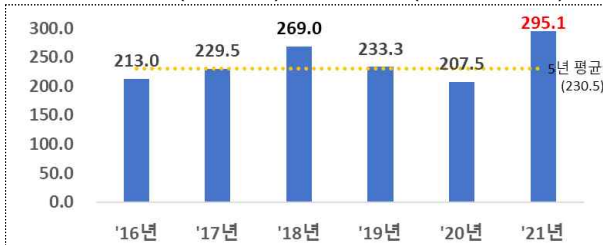
- (실적) '21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(FDI)는 신고기준 전년 대비 42.3% 증가한 295.1억불, 도착기준 57.5% 증가한 180.3억불을 기록하여 역대 최대치 달성

\* 종전 역대최대('18년) : 신고 269.0억불 대비 +9.7%, 도착 174.5억불 대비 +3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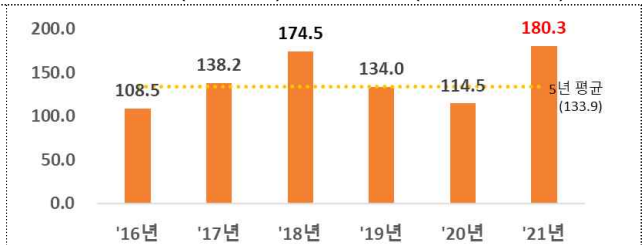
< '21년 누적 FDI 실적(단위 : 억불) >

구분	5년 평균 ('16~'20)	'18년 (기존 최대)	'20년	'21년	
				실적	(전년비)
신고	230.5	269.0	207.5	295.1	+42.3%
도착	133.9	174.5	114.3	180.3	+57.5%

< 연도별('16~'21) 신고액 (단위 : 억불) >



< 연도별('16~'21) 도착액 (단위 : 억불) >



< 분기별('16.1분기~'21.4분기) FDI 건수 및 금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- (평가) 코로나19 팬데믹 등에도 불구하고, 수출에 이어 외국인투자까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며 경제회복과 공급망 확충에 기여

- 공급망, 백신 · 바이오, 수소경제 등에 대한 투자유입으로 산업 ·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質적으로도 양호
-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각국이 外投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, 역대 최대 外투실적은 공급망 확충에 중요한 역할

## II. 세부 동향(업종별 · 국가별 · 대상별 · 자금별 · 지역별)

### 1. 업종별('21년 누적 신고기준)

□ (총괄) 신고금액 기준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서비스업(+64.2%, 비중 79.9%)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은 감소(△16.2%, 비중 17.0%), 기타 업종(+122.9%)은 증가

○ 신고건수는 제조업(+9.5%) · 서비스업(+47.8%) · 기타업종(+53.3%) 모두 증가 하였으며, 건당 신고금액도 전년 대비 증가(9.5백만불 → 9.6백만불)

\* 기타 : 1차 산업(농·축·수산·광업), 전기가스·수도·환경정화업 등

< 업종별('19~'21)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< 업종별('19~'21) 신고건수 (단위 : 건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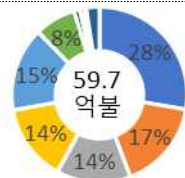
< 업종별('19~'21) FDI 비중 (단위 : %) >



□ (제조업) 50.0억불(전년비 △16.2%)

\* 제조업은 설비투자 등을 동반하는 관계로 서비스업 대비 회복이 느리게 나타나는 경향

< '20년 신고액 >



< '21년 신고액 >



■ 전기·전자      ■ 화학      ■ 운송용 기계      ■ 기계장비·의료정밀  
■ 식품      ■ 의약      ■ 금속·금속가공제품      ■ 비금속 광물제품

○ 주요 증가업종은 반도체제조업(+81.8%), 제지목재(+833.4%), 금속(+77.2%) 등, 감소 업종은 섬유·직물·의류(△97.4%), 식품(△42.3%), 기계장비·의료정밀(△18.5%) 등

\* (반도체제조업 투자사례) A社(2억불, 3분기), B社(0.1억불, 2분기)

□ (서비스업) 235.7억불(전년比 +64.2%)

< '20년 신고액 >



< '21년 신고액 >



■ 정보통신 ■ 금융·보험 ■ 도·소매(유통)  
■ 부동산 ■ 사업지원·임대 ■ 연구개발·전문·과학기술

- 정보통신(+317.2%), 도·소매(유통)(+139.1%), 사업지원·임대(+833.0%) 등 업종에서 투자가 크게 증가
- 'Online to Offline'(O2O)·전자상거래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서비스 투자가 유입되며 정보통신업 비중이 크게 증가(12%→30%)
- \* (주요 투자사례) C社(21.0억불, 1분기, 배달앱), D社(14.7억불, 3분기, 숙박·여행), E社(1.5억불, 4분기, 메타버스), F社(1.1억불, 4분기, 핀테크)

2. 국가별('21년 누적 신고기준)

\* EU : 영국 포함, 중화권 : 중국·홍콩·싱가포르·말레이시아·대만

□ (총괄) 신고금액 기준으로 미국(△0.9%)은 감소, EU(+169.0%)·일본(+52.8%) 등은 증가로 전환, 중화권(+38.1%)은 지속 증가

- 신고건수는 미국(+12.7%)·EU(+5.6%)·중화권(+43.8%)·일본(+18.9%) 모두 증가하며, 특히 EU의 건당 신고금액이 크게 증가(14.0백만불→35.8백만불)

< 국가별('19~'21)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< 국가별('19~'21) 신고건수 (단위 : 건) >



□ (미국) 52.6억불(전년比 △0.9%)

- \* 업종별 : 제조업(9.6억불, △51.7%), 서비스업(40.0억불, +20.6%)
- \* 유형별 : 그린필드형(50.0억불, △1.7%), M&A형(2.5억불, +19.3%)

< 업종별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< 유형별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- (업종별) 제조업은 전년比 감소, 서비스업은 증가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 소폭 감소, M&A형 소폭 증가

□ (EU) 128.0억불(전년比 +169.0%)

- \* 업종별 : 제조업(18.1억불, +20.8%), 서비스업(106.7억불, +240.9%)
- \* 유형별 : 그린필드형(34.7억불, +27.5%), M&A형(93.3억불, +358.2%)

< 업종별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< 유형별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- (업종별) 제조업도 증가하였으나, 서비스업에서 큰 증가세(+240.9%)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도 증가하였으나, M&A형이 증가세를 주도
  - \* (주요 투자사례) G社(18.0억불, 2분기, 데이팅앱), H社(6억불, 4분기, 배달앱), I社(3.8억불, 4분기, 게임)

□ (중화권) 75.4억불(전년比 +38.1%)

- \* 업종별 : 제조업(10.3억불, △41.6%), 서비스업(63.1억불, +73.4%)
- \* 유형별 : 그린필드형(64.1억불, +36.1%), M&A형(11.3억불, △26.1%)

< 업종별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< 유형별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- (업종별)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감소하였고, 특히 중국\*에서 전기·전자, 운송용기계 업종이 감소
  - \* 전기·전자: 5.39억불 → 3.12억불(△42.1%), 운송용기계: 0.82억불 → 0.05억불(△93.9%)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에서 서비스업 투자가 다수 유입되며 증가
  - \* (주요 투자사례) D社(14.7억불, 3분기, 숙박·여행), J社0.3억불, 3분기, 항체치료제)

□ (일본) 12.1억불(전년比 +52.8%)

- \* 업종별 : 제조업(4.7억불, +68.8%), 서비스업(7.3억불, +44.7%)
- \* 유형별 : 그린필드형(10.6억불, +76.1%), M&A형(1.5억불, △21.7%)

< 업종별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< 유형별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○ (업종별) '20년 감소하였으나 '21년에는 다시 증가하였으며,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고르게 증가

\* 제조업은 기계장비·의료정밀(+1,114.9%), 화공(+30.9%) 등 소부장 업종 중심 증가

○ (유형별) M&A형 감소(△21.7%)에 비해 그린필드형은 증가(+76.1%)

\* (주요 투자사례) K社(0.6억불, 4분기, 핀테크), L社(0.4억불, 3분기, 이차전지 분리막)

### 3. 대상별('21년 누적 신고기준)

□ (총괄) 신고금액 기준으로, 그린필드형, M&A형 투자 모두 '20년 감소세에서 '21년 증가세로 전환

○ 신고건수는 그린필드형(+46.4%), M&A형(+6.4%) 모두 증가하며, M&A형 투자에서 건당 신고금액이 크게 증가(21.0백만불→36.1백만불)

< 대상별('19~'21)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< 대상별('19~'21) 신고건수 (단위 : 건) >



□ (그린필드형) 180.9억불(전년비 +24.7%)

\* 업종별 : 제조업(42.7억불, △16.7%) , 서비스업(130.7억불, +40.8%), 기타(7.5억불, +634.1%)

○ 제조업 부문의 감소(△16.7%)에 비해 서비스업(+40.8%) 및 기타(+634.1%) 업종 투자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24.7% 증가

○ 서비스업은 정보통신(34.3억불,+163.7%), 도·소매(유통)(28.1억불,+147.3%) 등 증가, 기타업종은 대부분(신고액 중 71% 해당) 해상풍력 발전 등을 위한 투자

□ (M&A형) 114.2억불(전년비 +83.2%)

\* 업종별 : 제조업(7.3억불, △13.3%), 서비스업(105.0억불, +107.1%), 기타(1.9억불, △40.2%)

○ 제조업 및 기타업종은 감소세가 지속 되었으나, 서비스업에서 대형 M&A\* 투자가 집중되어 전년 대비 투자가 크게 증가

\* (주요 투자사례) C社(21.0억불, 1분기, 배달앱), G社(18.0억불, 2분기, 데이팅앱)

#### 4. 자금별('21년 누적 신고기준)

- (총괄) 신고금액 기준으로 신규투자(+42.3%), 증액투자(+31.8%)가 '20년 감소세에서 '21년 증가세로 전환, 장기차관(△32.4%)은 감소
- 신고건수는 신규투자(+54.6%), 증액투자(+30.6%)가 증가하였고, 장기차관(△18.2%)은 감소, 증액투자의 건당 신고금액 증가(11.9백만불→15.2백만불)

< 자금별('19~'21)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< 자금별('19~'21) 신고건수 (단위 : 건) >



#### □ (신규투자) 129.2억불(전년비 +31.8%)

\* 업종별 : 제조업(30.0억불, △26.3%) , 서비스업(92.1억불, +71.1%), 기타(7.1억불, +103.8%)

- 제조업 분야의 감소에도 불구하고, 서비스업 분야에 투자가 다수 유입되어 전년 대비 증가(+31.8%)

\* (주요 투자사례) M社(1.8억불, 2분기, 웹툰), N社(1.1억불, 4분기, 콜드체인)

#### □ (증액투자) 154.6억불(전년비 +66.9%)

\* 업종별 : 제조업(19.1억불,+9.2%), 서비스업(134.0억불,+79.0%), 기타(1.5억불,+444.5%)

- 서비스업의 신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대형투자 발생

\* (주요 투자사례) C社(21.0억불, 1분기, 배달앱), O社(12억불, 2·3·4분기, ICT기반 물류센터)

#### □ (장기차관) 11.4억불(전년비 △32.4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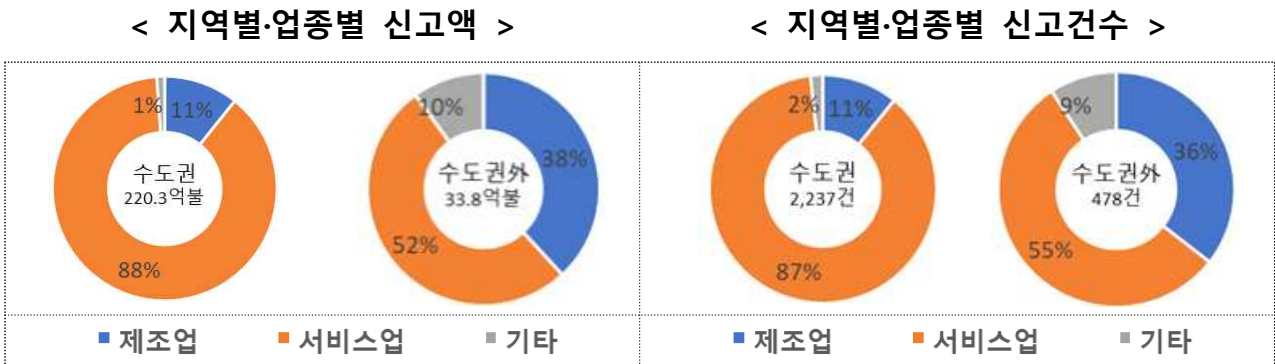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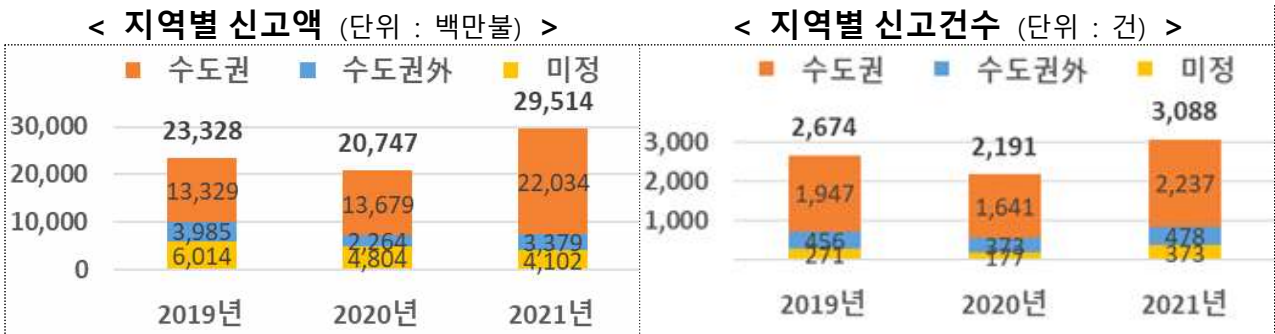
\* 업종별 : 제조업(0.9억불, △39.2%) , 서비스업(9.7억불, △35.2%), 기타(0.9억불, +75.9%)

## 5. 지역별('21년 누적 신고기준)

\* 수도권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/ 수도권 외 : 이외 14개 시도

\* 투자액이 모두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, 투자신고서 피투자기업 법인의 소재지에 따른 분류에 해당함

- (총괄) 신고금액 기준으로 수도권(+61.1%), 수도권 외(+53.5%)가 모두 증가
  - 신고건수도 수도권(+36.3%), 수도권 외(+28.2%) 모두 증가하였고, 전당 신고금액이 수도권에서 증가(6.8백만불→9.8백만불)



- (수도권) 220.3억불(전년비 +61.1%)
  - 신고금액 기준으로 제조업(+10.5%)·서비스업(+72.0%) 모두 증가, 서비스업(+72.0%)이 증가세 견인, 신고건수는 인천(+133.6%)이 크게 증가
- (수도권 외) 34.8억불(전년비 +53.5%)
  - 신고금액 기준으로 제조업(+11.0%)·서비스업(+107.6%) 모두 증가, 발전업 투자 확대로 기타업종도 투자금액 대폭 증가(+96.5%)하며 17개 시·도 중 13개 시·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
    - \* (감소 4개 시·도)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
  - 신고건수는 대구(+111.8%), 충북(+110.5%) 등 15개 시·도 증가
    - \* (감소 2개 시·도) 제주특별자치도, 대전광역시



### Ⅲ. '21년 외투 주요 특징

#### □ 量的·質的 측면에서 외투 개선

-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우려 속에서도 기저효과를 뛰어넘어 量的으로 최대 외투실적 달성
- 공급망 안정, K-글로벌 백신허브화, 수소경제 확산 등 산업·에너지 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되며 외투의 質的 측면도 제고

- ▶ (OO社) 반도체 부품(IC) 사업 확장을 위한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(미, 2.1억불, 3분기)
- ▶ (OO社) 일회용 세포배양백 등 백신 원부자재(캐, 0.3억불, 3분기)
- ▶ (OO社) 일회용백·배지·제약용필터·멤브레인 등 바이오 원부자재(독, 3억불, 4분기)
- ▶ (OO社) 수소차 연료탱크 제조공장 설립(벨, 0.3억불, 4분기)

#### □ K-뉴딜(디지털·그린) 분야 성장 기여

- 전자상거래, 게임,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대형 플랫폼 서비스 투자가 유입되며 팬데믹 이후 비대면서비스 성장기반 구축
- 태양광·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프라 확충에도 기여

- ▶ (OO社) 국내 숙박·여행 플랫폼서비스업체로, 글로벌 펀드 투자유치(싱, 14.6억불, 3분기)
- ▶ (OO社) 배달서비스 전문기업(요기요社) 인수(영, 6억불, 4분기)
- ▶ (OO社) 글로벌 펀드의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업체 투자(싱, 1.5억불, 4분기)
- ▶ (OO社) 태양광모듈(중, 0.1억불) / ▶ (OO社) 태안해상풍력(독, 0.1억불)

#### □ 첨단기술·ICT 기반 新산업 분야 투자증가

- 미래차, 바이오, ICT 등 新산업 분야 투자가 증가(134.4억불, 전년比 +59.6%)하였으며, 서비스업에서 증가세 견인(전년比 +100.6%)
- 전체 투자 중 新산업 분야 투자 비중은 45.5%를 차지하며(전년 대비 +4.9%p), 첨단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 증가

- ▶ (OO社) 데이터센터 증설을 통해 아시아 지역 서비스 확대(美, 2억불, 2분기)
- ▶ (OO社)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ICT기반 물류센터 건립(미, 12억불, 2·3·4분기)
- ▶ (OO社) 항체치료제(싱, 0.3억불, 3분기), / ▶ (OO社) 핀테크(일, 0.6억불, 4분기)

#### □ 핵심 소재·부품·장비(소부장) 분야 제조업의 투자비중이 지속 증가하며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

- \* 소부장 신고금액은 소폭 감소('20년 38.0억불 → '21년 35.2억불, △7.4%)하였으나, 신고건수(261건 → 321건) 및 도착금액은 증가('20년 18.6억불 → '21년 21.9억불, +17.9%)
- \* 소부장 투자 중 제조업 비중 : '19년 49.8% → '20년 64.6% → '21년 70.3%

- ▶ (OO社)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·생산시설 구축(미, 0.3억불, 2분기)
- ▶ (OO社) 반도체 제조공정용 특수가스 생산시설 투자(일, 0.1억불, 4분기)